

## 감성과학의 심리학적 측면

정 찬섭

연세대 교수, 심리학

감성과학은 인간의 심리적인 반응의 한 측면을 연구하는 학문이기 때문에 그것의 정의, 연구문제, 연구방법 등을 규정하는데 있어 심리학과 밀접한 관련을 맺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객관적인 검증 과정을 통하여 정제된 개념들만을 적자개념(嫡子概念)으로 수용하는 심리학에서 기분이나 느낌과 같이 막연하고 광범위한 심리 상태를 지칭하는 '감성'이라는 용어는 아직 하나의 개념으로서 확고한 신분과 지위를 갖고 있지 못하다. 심리학에서는 감성보다는 그것의 조각들이라고 할 수 있는 '동기', '정서', '태도' 등의 좀 더 구체적이며 분석적이고 조작이 가능한 다양한 개념들이 연구되어 왔다. 그러나, '감성'이라는 용어 아래 이 조각들을 체계적으로 맞추어보려는 시도가 아직 없었기 때문에, 그것들을 다 끌어 모은다 해도 감성이라는 하나의 그림이 나타날 지는 장담할 수 없다. 감성과학이 하나의 독보적인 과학으로서의 자리를 굳히기 위해서는 이들 기존의 감성관련 개념들을 이용하여 감성에 대한 하나의 개념적 체계를 먼저 정립할 수 있는지를 검토해 봐야 한다.

감성을 하나의 심리적 개념으로 설정하고 그것에 접근하여 심리적 현상에 대한 의미 있는 설명들을 도출해 내려면 그것의 구성 개념이나 그것의 구조적 특성을 조명해야 된다. 감성이라는 개념이 이질적이며 복합적인 광범하고 다양한 요소들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보조 개념이나 설명 체계 없이는 그 뜻이 막연하기 때문이다. 감성은 그것을 구성하는 하위 개념들과 그 개념들 간의 관계 구조가 파악될 수 있을 때 비로소 하나의 심리학적 개념으로서 효용성을 지니게 된다는 것이다. 감성처럼 의미 영역이 넓고 그 경계가 모호한 개념은 그것의 내부 골격을 투시할 수 있는 도구나 체계가 있어야만 그것의 기본 구성 개념이 무엇이며 하부 개념들의 열개가 어떤 좌표체계를 이루고 있는가를 조직적으로 파악할 수 있다.

감성의 개념을 정의하고 그것의 구조와 구성적 특성을 밝히는 작업은, 감성을 객관적으로 정량화하여 측정하는 작업과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 철학에서 온 모든 추상적 개념들이 심리학에서는 일상 생활의 영역으로 한 걸음 더 나아가 우리와 구체적인 접점을 가지고 있는 듯한 인상을 주는 것은 그 개념들이 조작 가능하고 측정 가능한 형태로 정제되고 가공되기 때문이다. 물리학에서 물성의 측정을 위해 저울과 자를 사용하듯 심리학에서도 심성의 측정을 위해 정신물리학적 척도, 심리측정법, 생리적 측정법 등과 같은 다양한 저울과 자가 사용되고 있으며 감성의 측정에 이것들이 이용될 수 있다.

감성과학이 어떤 모습으로 자리를 잡아가든 그것이 심리학과 크게 중첩된 연구 영역을 거느릴 것은 분명하다. 심리학은 이제 막 뿌리를 내리려는 신생 학문인 감성과학에 도량이 되는 학문으로서 감성의 개념적 정의, 개념 구조와 구성적 특징, 측정 도구 등을 제공하는 배양체 역할을 하여야 한다.

## 1. 감성 개념의 심리학적 정의

한 개념의 정의적 속성은 그것이 속한 의미군의 조직 속에서 분명히 드러나게 된다. 의미군이란 특정 사상을 표상하는 개념 요소와 그 요소들 간의 관계의 집합으로 표시할 수 있는데 한 개념은 궁극적으로 다른 개념과의 대비에 그 존재 기반을 둔다. 예를 들어 '남자'라는 개념은 '여자'라는 대비 개념이 없으면 그 존재 기반이 사라지게 된다. 이런 맥락에서 볼 때 '감성'의 뜻을 논하려면 '이성(理性)'이라는 대비 개념의 뜻을 생각하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다. 그러나 문제는 감성과 이성과의 대비 관계가 남자와 여자의 관계처럼 뚜렷하지 않다는 것이다. 감성을 이해하기 위해 이성을, 이성을 이해하기 위해 감성을 생각하다보면 마치 두 마리의 뱀이 서로의 꼬리를 맞물고 있듯이 개념의 주종이나 선후를 따질 수 없는 의미의 미로 속에 쉽게 빠져들게 된다. 철학자가 '이성'과 '감성'에 대해 말할 때 대부분의 사람들이 생각의 미로에 갇히게 되는 것은 이 두 개념이 남자와 여자의 신체적 구조나 유전자 차이처럼 단순 명료하고 객관적으로 관찰 가능한 뚜렷한 대비 속성을 지니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철학에서 말하는 이성과 감성의 개념적 정의의 대비는 일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과 달리 그리 간단치 않으며 따라서 감성의 개념을 이성과 대비시켜서 정의하려는 것은 제한된 의의를 지닌다고 할 수 있다.

심리학에서는 조작할 수 없는 추상적 개념들을 조작 가능한 하위 구성 개념들로 분해해서 다루는 전통을 이어 왔으며 감성의 문제에서도 이런 전통은 예외가 아닐 것으로 예측된다. 우리는 특정 사물이나 인물에 대해 어떤 감성을 지니고 있는냐고 물으면 어리둥절한 반응을 얻겠지만, 그것이 얼마나 좋은가를 묻거나, 얼굴 표정을 읽거나, 좀 번거롭지만 계측 장비를 써서 뇌파를 측정한다면 꽤 신뢰롭고 수궁이 가는 감성 관련 반응을 얻게 될 것이다. 심리학은 이렇듯 조작과 측정이 가능한 하위 단위 개념들을 위계적으로 조합하여 상위 복합 개념을 구성해 나감으로써 개념의 모호성을 극복하는 전략을 채택하고 있다. 이런 과정을 통하여 생겨난 개념들은 객관성이 높아진다는 장점이 있으나, 의미 대역 폭이 좁아져 거대 심리 현상(macro psychological phenomena)을 설명하는데 빈틈이 생기게 된다는 단점도 있다. 현재의 심리학은 감성 개념과 같이 크고 복잡한 그림을 완결할만한 충분한 퍼즐 조각, 즉 체계적으로 구획 정리가 잘 된 하위 구성 개념을 갖고 있지 못하다. 이러한 문제 때문에 감성 개념을 심리학적으로 정의하는 맨 처음 작업은 심리 현상을 기술하는 기존의 개념들 가운데 어떤 것이 감성과 관련된 것이며 어떤 것이 아닌가를 구분하는 일이 되어야 한다.

일반적으로 심리학에서는 심리적인 상태를 동기적인 측면(motivational aspect), 정서적인 측면(emotional aspect), 인지적인 측면(cognitive aspect)으로 구분하여 이해하려 한다. 동기적 측면에서는 주로 특정 목표를 향해 행동하도록 만드는 심리적 과정이나 상태를 다루게 되는데 이것들은 다시 배고픔, 목마름, 성욕 등의 기본 욕구 충족과 관련된 생리적인 동기와 성취나 자존심 등의 욕구 충족과 관련된 사회 문화적 동기로 나누어 살펴볼 수 있다. 정서적인 측면에서는 우리의 내적상태(內的狀態) 가운데 심장 박동과 같은 생리적 변화나 표현적 행동에 자주 수반되는 감정(feeling)이나 사고(thought)의 동적(動的) 양상을 주로 문제삼는다. 여기서 동적 양상이라 함은 내적 상태가 한 시점에서 다른 시점으로 역동적으로 바뀌거나 울거나 웃는 것처럼 특정 행동으로 이어지는 양상을 말한다. 이러한 특성들을 조합하여 다시 정의하면 정서는 생리적 변화, 정서적 반응, 표현적 행동의 조합이 빚어내는 기분(mood)이나 감정(feeling) 또는 강한 느낌에 해당되는 내적 상태이다. 인지적 측면에서는 감각 기관에서 자극이 수용되고 그것의 정체가 기억과 대조되어 확인되는 과정, 기억 정보의 인출, 활용, 변형을 통하여 문제해결을 하는 과정 등 두뇌에서 일어나는 정보 처리 과정을 중점적으

로 다룬다. 어떠한 뇌의 인지작용은 동기나 정서에 의해 영향을 받을 수 있지만 인지 작용 자체는 지능적인 판단 능력을 지닌 컴퓨터 내에서 정보가 상징적인 부호의 형태로 처리되고 표상되는 것과 같이 동기나 정서와 독립적인 관점에서 이해될 수가 있다.

심리적 상태의 측면들 가운데 정서는 감성과 가장 근접해 있는 개념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정서는 엄격히 말해서 감성과 동일시 될 수 있는 개념보다는 그것에 내포된 개념이라 할 수 있다. 결핍 상태를 알리는 목마름이나 배고픔의 상태처럼 동기적인 심적 상태의 많은 것들이 감성의 적법한 요소가 될 수 있는 것으로 보아도 그렇다. 그렇다면 정서와 동기를 합친 것을 감성과 동일시 할 수 있다고 보는가? 늘 자각(自覺)되지 않지만 지속적으로 행동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성취동기(achievement motivation)처럼 많은 사회, 문화적 동기들이 감성의 영역에 들 수 없기 때문에 이도 역시 곤란하다. 그러나 한가지 분명한 것은, 내적 상태의 인지적 요소는 그것의 정의 자체에 감성을 배제하고 있어 감성과는 상당히 거리가 멀다.

현재로서는 감성을 정확하게 정의할 수 있는 심리학적 개념들은 없으며 아마도, 심리학적 관점에서 감성을 좁은 의미로 정의할 때는 정서(emotion)와 동일시하고 넓은 의미로 정의할 때는 비인지적인 내적 상태(non-cognitive internal states)와 동일시하는 것이 최선일 것 같다. 그러나 궁극적으로는, 감성과학이 심리학적 용어를 유추나 비유적으로 빌어 쓰기 보다는 감성이라는 개념의 뜻을 정교하게 만드는 작업을 최우선 과제로 추진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감성의 구성 개념 또는 하위 개념들을 잘 정비하고 이들 개념들을 조작적으로 정의(operational definition)하기 위한 표준 절차들을 개발하는 노력이 있어야 한다.

## 2. 감성의 구성 개념과 기저 차원

감성이 심리학적으로 유효한 개념이 되기 위해서는 그것의 구조적 및 구성적 특성이 분명해야 된다. 그래야만 기본 감성요소가 무엇이며 이들 요소들 간의 관계가 어떤지를 분명히 규정할 수 있다. 감성이라는 개념이 심리학적으로 아직 잘 규정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여기서는 심리학적 개념들 가운데 감성에 가장 근접한 개념으로서 감성과 매우 유사한 개념의 구조 및 구성적 특성을 지니고 있다고 추정되는 정서를 통하여 이 문제를 논해 보기로 하겠다. 감성의 개념 영역(conceptual domain)이 정서의 그것보다 크기 때문에 논의가 감성의 특정 범위로 편파되어 전개될 위험이 있는데 추후에 이 문제도 아울러 고찰해보겠다.

우리말의 칠정(七情)은 일곱 가지 감정인 희(喜), 노(怒), 애(哀), 낙(樂), 애(愛), 오(惡), 욕(慾)을 뜻하며 비슷한 방식의 감성 유형 분류가 동서 고금을 관통하여 내려오고 있다. 정서에 관한 초기의 심리학적 연구들은 이들 다양한 유형의 정서가 발현되는 심리적 기저 차원을 확인하는데 관심을 갖고 있었다. 현재까지 꾸준히 이어지고 있는 이 전통의 연구 결과를 종합하면 모든 연구에서 쾌-불쾌 차원이 가장 중요한 정서의 제 1차원으로 나타나있다. 그 다음으로 중요한 차원으로는 대체로 모든 연구자가 각성-수면(arousal-sleep)을 들고 있다. 세 번째로 중요한 제 3차원에 대해서는 연구자마다 차이가 많아 우세(dominance), 역능(potency), 공격성(aggressiveness), 통제(control), 원인소재(locus of causation), 경험심도(depth of experience) 등을 꼽고 있는데 이들 대부분은 자료의 경험적 분석을 토대로 차원 이름을 붙이기가 힘들고, 그 이름들을 보면 알 수 있듯이 정서 경험 자체보다는 그것의 선행 요인이나 결과에 관련된 것들이다. 결론적으로, 이 분야의 연구발견들은 쾌-불쾌와 각성-수면의 두 차원값의 조합, 즉 이 두 차원으로 된 2차원 평면의 조합으로 대부분의 정서를 설명할 수 있다는 것으로 요약될 수 있다.

차원모형은 매우 경제적인 방법으로 정서를 표상할 수 있으며, 정서 항목들 간의 관계를 수리적으로 규정해 줄 수 있다는 데에서 진가를 갖는다. 그러나 꽤, 각성의 두 차원 좌표값이 (3,5) 되는 점이 '흥분'을 나타내고 (-3,-3)이 '침울함'을 나타낸다고 할 때 이들 좌표값에 해당되는 심리적 상태에 대한 언급 없이 (3,5), (-3,-3)의 값만 준다면 그것에서 직관적으로 어떤 의미를 전달받을 수 있겠는가? 이런 점 때문에 일단의 많은 정서 연구자들은 차원 모형보다는 모든 정서가 몇 가지 전형적인 기본 정서의 범주로 묶일 수 있다는 가정 아래 앞서 언급했던 우리 고유의 칠정같은 기본 정서 유형을 찾아내는 데에 집착한다.

정서의 범주에 관한 연구 발견들을 종합하면 연구자마다 조금씩 차이는 있으나 대부분 우리의 모든 정서는 행복감(happiness), 놀람(surprise), 슬픔(sadness), 공포(fear), 혐오(disgust), 분노(anger)의 여섯 가지 정서 중 어느 하나로 분류될 수 있다는 것이다. 연구자에 따라 이 여섯 가지 기본 정서에 한 개에서 세 개까지의 항목을 첨삭하기도 하여 어떤 연구자는 이 여섯 가지에서 놀람을 빼 다섯 가지 정서를 기본 정서로 꼽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이 여섯 가지에 관심, 피로움, 부끄러움 등을 추가하여 기본 정서가 아홉 가지라고 가정하고 있다. 즉, 정서는 서로 배타적인 이들 여섯 개의 하위 성분 개념들로 분해되어 파악될 수 있다는 것이다.

정서의 차원 모형과 범주 모형은 서로 상보적인 정보를 포함하고 있어 이 둘을 조합하여 정서를 표상하는 체계를 만들 경우 정서 항목간의 관계를 파악할 수 있으면서 직관적으로 자명한 정서 상태의 명명이 가능해진다. 이러한 배합 표상체계의 장점을 살려 최근 몇몇 연구자들은 정서 연구에 새로운 돌파구를 모색하고 있다. 예를 들어, 한 연구자는 고양, 들뜸, 쾌, 만족, 졸림, 침잠, 비참, 짜증이 2차원 평면 좌표체계에 고리 형태로 분포하고 있는 모형을 제시하고 있어 기본 정서가 여덟 개이며 그들이 원주 배열 형태의 관계 구조를 갖고 있다는 것을 효율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논의의 초점은 이제 과연 심리학이 제공하는 정서 모형으로 감성 개념의 일반적인 구조 및 구성적 특징을 포착할 수 있는 지로 옮길 때가 되었다. 결론부터 이야기한다면 회의적이다. 기존의 정서 연구에서 도출된 여섯 가지 기본 정서인 행복감, 놀람, 슬픔, 공포, 혐오, 분노는 다소 정도 차이는 있지만 모두가 사회적이거나 생존과 관련된 반응에 치우쳐 있으며 에너지가 충전된 심리 상태들 뿐이다. 그러나, 마음을 움직이는 동력은 사회적이거나 생존과 관련된 것 이외에도 다양한 것이 있으며 그 강도도 다양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남이 웃음을 짓는 것을 보고 '촌스럽다', '이색적이다', '참신하다', '품격있다', '장난스럽다'와 같은 감성 반응이 일어날 수 있다. 그러나 정서는 이 적절한 감성 반응을 분류하여 수용할 능력이 없다.

감성 모형은 정서 모형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심미적 반응(aesthetic response)이나 유머 반응같은 다양한 심리적 상태를 포함할 수 있는 설명 체계를 갖추어야 한다. 이를 위한 개념의 정비 작업이 진행되는 동안 감성은 정서보다는, 비인지적 내적 상태로 규정하는 것이 더 타당할 듯 하다.

### 3. 감성의 측정 문제

감성의 측정에서는 정서의 측정에 사용되는 방법들을 그대로 도입하여 사용할 수 있다. 이 방법들은 내적상태를 기술하는 형용사 어휘 또는 척도를 사용하는 방법, 표정/제스처를 토대로 내적상태를 추론하는 방법, 계측기를 사용하여 생리적 변화를 측정하는 방법의 세 가지로 대별된다.

형용사 어휘를 사용하는 방법에서는 대개 측정 대상의 감성적 측면을 기술할 수 있는 모

은 어휘들의 대규모 집합을 구한 뒤 어휘 간 유사성 판단 등을 통해 감성의 구성 차원이나 범주를 추출한다. 어휘 항목 간 유사성 판단은 항목들을 특정 준거에 따라 묶거나 항목들의 개념적 거리를 추정하는 자료로 사용되는데 이러한 작업에 의미미분법(semantic differential), 군집분석(cluster analysis), 요인분석(factor analysis), 주성분분석(principal component analysis), 중다차원분석법(multidimensional analysis)등이 사용된다. 특정 대상을 위한 감성 어휘 구조가 이러한 경험적 및 통계적 분석 절차를 거쳐 단순 명료화되면 그 다음에는 이 단순화 된 체계를 이용하여 그 대상에 대한 감성 반응을 측정한다.

표정을 이용하여 내적 정서 상태를 추론하는 모형들은 기본정서에 해당되는 내적상태가 자동적으로 특정 표정과 연결된다고 가정한다. 표정을 통하여 내적상태를 추출하는 것이 그리 간단하지는 않지만, 진실을 숨기거나 왜곡할 수 있는 언어 반응과 달리, 얼굴의 표정은 진실된 사물의 상태를 그대로 드러내준다는 믿음 때문에 대부분의 정서 연구자들은 표정의 측정에 높은 이론적 및 실용적 가치를 부여한다. 일부 표정 연구는 영상 분석, 얼굴 근육의 근전도 등에 대한 이론적 및 경험적 연구 결과를 토대로 얼굴표정과 정서상태를 대응(mapping)시키는 꽤 신뢰롭고 타당한 추론 모형을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이 모형들이 정서의 맥락을 떠나서, 감성 일반의 추론 모형으로 사용될 수 있을지는 아직 의문의 여지가 많다.

생리적 변화를 측정하여 내적상태를 추론하려는 연구들은 강한 정서 상태와 같은 뚜렷한 내적상태는 그에 상응하는 차별적인 생리적 변화의 특징이 있다고 가정한다. 이런 가정 아래 최근 EEG, GSR, CRP, MRI등 다양한 방법들을 이용한 내적상태 추론 기법들이 개발되었다. 생리적 측정법은 측정의 객관성과 신뢰성이 보장된다는 데에 그 진가가 있다. 그러나 이 방법은 특정 생리적 측정치가 어떤 내적상태를 나타내느냐를 결정하기 위해서는 언젠가 피측정인으로부터 내성을 받거나 감성 유발 실험을 하여 측정치의 해석을 위한 교차 상관 준거를 마련해야 한다는 문제점이 있다. 즉, 측정치들에 심리학적 의미를 부여하기 위해서는 언젠가 내성 보고와 교차 비교하는 연구를 하여야 되기 때문에 이 측정법의 타당도가 내성보고법의 타당도를 넘어설 수 없다는 문제점을 지닌다. 그러나, 생리적 측정치를 이용한 감성 연구는 다른 측정법을 이용한 연구와 잘 짝이 맞춰지는 경우 감성과학의 과학적 기반을 굳히는 데 결정적 공헌을 할 수 있다.

#### 4. 맺음말

감성과학이 앞으로 독립된 학문으로서의 기초를 다지기 위해서는 감성의 개념적 정의를 분명히 해야 한다. 감성과학은 방법론에서는 심리학의 지원에 의해 확고한 기반을 갖출 수 있지만, 개념적 체계를 세우는 데 있어서는 그렇지 못하여 많은 미완의 문제를 안고 있다.